

노인대학 의료봉사에서 인생을 배우다



조 화 정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간호사

“성모노인대학 어르신들 힘내십시오, 의정부성모병원 간호사들이 응원합니다!”

병원을 벗어나 어르신들을 만났다. 경기도 의정부 주교좌성당 성모노인대학을 찾아가 심장혈관 질환에 대한 건강강좌를 진행했다. 지역사회 공헌을 실천하고자 올해부터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간호사들이 성모노인대학에서 건강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여기저기서 맛있는 냄새도 솔솔 나고 평화로운 일상으로 보이지만 성당 안은 맑은 바 임무를 수행하는 식당봉사자, 제대봉사자, 관리장님, 수녀님, 신부님으로 북적였다.

어르신들께 인사를 드리니 감사하게도 반겨주셨다. 지루해하거나 관심 없어하면 어쩌나 걱정만 것도 잠시, 한 어르신이 심장혈관 질환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먼저 물어보셨다. 질문에 답하기도 전에 다른 어르신이 자신의 경험담을 털어놓으셨다.

“내가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수술 받았잖아. 내 나이가 올해 85세야. 그 때 수술을 잘 받아서 앞으로 20년도 거뜬할 것 같아”라며 자랑하셨다.

어느덧 강좌는 중간을 넘어 인공심박동기에 대한 영상을 보여드리고, 심장의 전도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차례였다.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또 경험자 한 분이 등장했다.

“5년 전에 횡단보도에서 쓰러져 구급차 타고 병원에 갔는데 심장박동을 뛰게 해주어야 된다고 요만한 기계를 넣어줬어. 근데 그것을 또 해주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요?”하고 물어보셨다. 어르신이 먼저 실감나게 경험담을 얘기해주실 줄이야.

강좌를 준비할 때는 혼자 어떻게 이끌어갈지 고민했는데 괜한 걱정이었다. 어르신들의 경험담이 더해지고, 질문과 응답이 오가다보니 풍성해졌다.

교육이 끝난 후 어르신들과 느긋하게 점심식사를 하며 살아가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 빈뇨로 새벽잠을 설치고 고생하는데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이야기. 치매 걸린 배우자를 돌보느라 많이 지쳤다는 할머니. 자신이 늙어가는 것을 받아들이기 싫다고 솔직하게 말하며 세월을 탓하는 분도 계셨다.

모두 저마다 다른 삶을 살고 계시지만 공통적으로 “내가 건강해야 가족이 화목하다”며 건강관리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규칙적으로 운동한다는 어르신들의 얘기를 들으며 한 수 배워야겠다고 생각했다. 평소 병원에서서는 눈 코 뜰 새 없이 하루가 지나갔는데, 오늘은 어르신들 덕에 오랜만에 조금 느린 오후를 맞이할 수 있었다.

어르신들은 “간호사들은 다 천사”라고 칭찬해주셨다. 필요한 것을 미리미리 챙겨주고, 아픈 상처를 돌봐주고, 웃음으로 행복을 주니 천사라고 하겠다. 몸 둘 바를 몰랐다. 내게는 어르신들의 밝은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보였다.

내가 먼저 웃으면서 인사해요!



이 하 은 마산대 간호학과 4학년

환자에게 먼저 웃는 얼굴로 인사하며 다가가 인부를 묶고, 여러 직종이 함께 일하는 병원에서 소통의 허브 역할을 하는 간호사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소통의 첫걸음이 되는 인사의 중요성에 대해 느꼈다. 학교에서부터 인사가 몸에 배게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됐나.

마산대 간호학과는 전체 학생 1200여명이 한 건물에서 함께 배우며 생활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학생 수로 인해 서로 잘 알지 못한다는 점과 인사를 건넨 후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을 때의 민망함에 대한 걱정으로 인사가 잘 되

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먼저 인사를 건넨 사람이 어색하지 않게 서로 웃으며 인사를 하며 지나가는 취지 아래 ‘내가 먼저 웃으면서 인사해요!’라는 슬로건을 갖고 인사캠페인을 시작했다.

캠페인의 취지를 듣고 교수님들께서 함께 해주셨다. 인사하는 문화 형성을 위해 학교에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엘리베이터와 화장실 안 등 건물 곳곳에 홍보물을 부착했다. 전교생에게는 인사 캠페인 배지를 나눠줬다. 아침 등굣길에 플래카드를 들고 어깨띠를 두른 간호학과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입을 모아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처음에 캠페인을 진행할 때는 부끄러워하며 뛰어가는 학생, 멀리서부터 먼저 웃으며 다가가 인사해주는 학생, 일부러 돌아가는 학생 등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하루 하루 캠페인 횟수가 늘면서 웃으며 인사를 받아주는 학생들이 많아졌다. 등굣길뿐만 아니라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혹은 복사에서 출력을 위해 줄을 서는 순간에도 눈이 마주치

면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서로 인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한 교내실습 캠퍼스와 병원실습에 인사캠페인 배지를 달고 다니는 학생들도 늘어나고 적극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꼈다.

한 번은 간호학과 건물 내 대강당에서 열린 교육에 참석차 외부에서 많은 분들이 찾아왔다. 간호학과 학생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자연스럽게 그분들께 인사를 건네자 한 분이 후배로 착각하며 ‘오랜만이다’라고 인사하는 유쾌한 해프닝도 있었다. 인사캠페인 덕분임을 알게 된 그분들은 우리들을 격려해주셨다.

하루를 여는 아침에 진행했던 인사캠페인 덕분에 학교 분위기가 더욱 밝아졌다. 미소와 함께 건네는 인사를 통해 학생들이 서로 소통하는 계기가 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지고 참 좋았다. 인사하는 문화가 간호학과를 넘어서 널리 퍼져 좋은 문화로 자리 잡기를 소망한다.

국립여성사전시관 ‘파독간호사’ 상설전시

간호협회 소장 자료 대여해 전시

한국 경제발전의 초석이 된 파독간호사의 자랑스런 발자취를 만날 수 있는 상설전시 코너가 국립여성사전시관에서 2014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파독간호사에 대한 자료는 전시관 2층 상설전시실에서 볼 수 있다. 독일에서 발급해준 국제간호사 자격증, 파독간호사가 고향으로 보낸 편지와 송금표 등이 전시돼 있다. 이 전시물들은 대한간호협회가 파독간호사로부터 기증받아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대여해 준 것이다.

전시실에는 “파독간호사들이 매년 국내로 송금한 1천만 마르크 이상의 외화는 한국 경제개발에 커다란 기여를 했다”는 소개의 글이 적혀 있다. 이와 함께 1966년 서독으로 출발하는 비행기에 오르는 간호사 모습을 담은 사진(국가기록원), 1970년대 파독간호사의 모습을 담은 사진(주독대한민국대사관)을 만나볼 수 있다.

국립여성사전시관은 정부고양지방합동청사 1·2층에 위치하고 있다. 1층은 기획전시실로 1년에 한 번 특정 주제로 전시를 열고 있다. 2층 상설전시실에서는 ‘과거를 담아 미래를 열다’ 주제로 고대부터 현대까지의 여성 역사를 전시하고 있다. 접대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해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전시도 진행한다.

국립여성사전시관은 서울지하철 3호선 화정역 4번 출구에서 도보로 5분, 관람시간 매주 월~토요일 오전 9시부터



국립여성사전시관에 마련된 파독간호사 상설전시 코너에는 대한간호협회가 대여해준 자료(사진 아래)가 전시돼 있다.

더 오후 6시까지, 입장료 무료.

최수정 기자 sckhoi@

한국 최초 여성인권선언문 ‘여권통문’

여성의 교육권-직업권-참정권 주장

선언문 발표 120주년 맞아 특별전 개최

한국 최초의 여성인권선언문인 ‘여권통문’이 발표된 지 120주년을 맞았다.

여권통문은 세상을 향해 여학교를 설립하자고 외치는 내용으로 여성의 근대적 권리인 교육권, 직업권, 참정권을 주장하고 있다.

1898년 9월 1일 서울 북촌(현 종로구)의 이소사와 김소사 이들로 발표됐다. 당시 ‘소사’라는 단어는 기존 여성을 일컫는 말로 여권통문이 여성에 의해 작성됐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주체적이고 근대적인 여성들이 출현했음을 알리는 놀라운 사건이었다.

여권통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 3가지다.

첫째, 여성도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교육권) 교육은 남녀평등의식을 고양시키고 교육을 통해서 여성은 정치 참여의식, 직업의 기회를 가진다.

둘째, 여성도 직업을 가질 권리가 있다. (직업권) 경제활동은 여성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고 독립된 인격 확립의 시작이다.

셋째, 여성도 문명개화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참정권) 새롭게 변화하는 시대에 여성들도 개화정치에 등장해야 한다.

당시 여권통문 전문이 황성신문(1898년 9월 8일) 및 독립신문(1898년 9월 10일)에 실렸고, 발췌문이 제국신문(1898년 9월 6일) 및 독립신문 영문판(1898년 9월 10일)에 게재됐다.

여권통문을 실으면서 황성신문에서는 ‘하도 놀랍고 신기하여’라는 반응, 제국신문에서는 ‘진실로 희한한 일이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독립신문 한글판에서는 아무런 사족 없이 전문을 그대로 실었고, 영문판에서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아 실었다.

여성가족부는 “여권통문은 19세기 말 우리나라 여성들이 전통적 여성관에서 벗어나 여성의 근대적 권리를 주체적으로 자각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주 문제를 해결하고 독립된 인격 확립의 시작이다.”



권 획득에 영향을 미쳤다는 데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여권통문 발표 1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여권통문을 아십니까’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어 국립여성사전시관(관장 기계형)에서 ‘오늘, 여권통문을 다시 펼치다’ 주제로 특별기획전을 열고 있으며, 2019년 1월 31일까지 전시된다.

특별기획전에서는 이이화 역사학자가 번역하고, 박정숙 서예가가 쓴 여권통문을 만날 수 있다. 여권통문 전문이 실린 황성신문과 독립신문, 발췌문이 실린 제국신문과 독립신문 영문판도 전시돼 있다.

또한 현재를 살아가는 여성들의 문제의식을 담은 ‘신여권통문’, 한국 여성운동의 근원과 역사 자료, 세계 각국의 여성운동 관련 자료 등을 볼 수 있다.

최수정 기자 sckhoi@

30년 전통 대방열림고시학원

최다 합격자 + 입소문, 합격생이 추천하는 기술직 명문 학원

- 기술직 공무원
- 간호직
- 보건직
- 보건진료직
- 의료기술직
- 국가 면허시험
- 간호사 국가고시
- 위생사
- 보건교사 임용고시



매월 초 개강 / 수시 등록 가능 / 학원강의 연중 순환식 진행
이론반 > 심화반 > 기출문제반 > 단원별·모의고사 문제풀이반



대방열림고시학원
바로가기 QR코드



NAVER 진통카페
바로가기 QR코드

상담문의 02-823-47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108길 4
신한헤스티아 2층 (영등포역 5번출구)

보건교사 특강

2019.1.7 (월) 개강



노성인
성인보건



오정화
아동간호
모성간호



김희영
지역사회간호
학교보건
정신간호

3인의 전공·전문교수진

- 간호직공무원, 간호사국가고시에서 검증완료된 전문교수진
- 최신 경향 집중 분석, 제대로 된 강의준비
- 10년 이상의 현장강의 경력 [현재 진행중]
- 경쟁교재 및 강의의 취약점을 철저히 분석
-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커리큘럼 / 수강료



보건교사 스터디 카페
바로가기 QR코드